

손 호 영

Backend & Platform Engineer

010-8586-4134 · tls1234568@naver.com
github.com/pyrimidine02

지원 동기 및 목표

안녕하십니까. 8,852명이 실제로 사용하는 서울 지하철 실시간 추적 서비스를 직접 설계하고 구축한 백엔드 엔지니어 손호영입니다.

저는 단순히 코드를 작성하는 개발자가 아닌, 실제 사용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엔지니어가 되고자 합니다. RailNetwork Control 프로젝트에서 서울교통공사의 비공개 엔드포인트를 리버스 엔지니어링하여 실시간 열차 위치 API를 구축하고, 복잡한 열차 지연 로직을 분석하여 정확한 도착 예정 시간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이를 통해 25M+ 이벤트를 처리하는 고성능 백엔드 시스템을 구축하며, 확장 가능한 시스템 설계 역량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핵심 역량 및 강점

1. 문제 해결 중심적 사고

알고리즘 문제 해결을 즐기며, 이를 통해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 Solved.ac Platinum IV (Rating: 1774) — 상위 1% 수준의 문제 해결 능력
- Codeforces Pupil (Rating: 1214) — 글로벌 경쟁력 검증
- Reply Code Challenge 2024: 전 세계 1,844팀 중 24위 (상위 1.3%)
- ICPC Seoul Regional: 교내 예선 3위

이러한 알고리즘적 사고는 복잡한 시스템 문제를 분해하고, 최적화된 솔루션을 설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RailNetwork에서 API 응답의 상태 코드 (1,2,3,4)만으로 출발/도착 판정과 지연시간 계산 로직을 구현하고, 2호선 순환선 특성으로 인한 열차 번호 충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2. 실전 백엔드 시스템 설계 경험

extbfRailNetwork Control (2023.07-현재)

- 8,852명 월간 활성 사용자, 25M+ 이벤트 처리하는 실시간 시스템 운영
- 서울교통공사 내부 API 리버스 엔지니어링으로 실시간 열차 위치 데이터 확보
- API 상태 코드 (1,2,3,4)를 활용한 출발/도착 판정 및 지연시간 계산 로직 개발
- Node.js + Express.js + gRPC 기반 고성능 백엔드 아키텍처 설계
- Redis 캐싱과 MongoDB를 활용한 데이터 지속성 및 성능 최적화
- 상태 코드 기반 열차 운행 상태 추적과 안정적인 실시간 데이터 처리

extbfGirls Band Tabi LBS Platform (2025.08-현재)

- Kotlin + Spring Boot 3 + PostGIS 기반 위치기반 서비스 플랫폼 구축
- 180+ REST API 엔드포인트와 OpenAPI 3.0 문서 자동 생성
- JWT/RBAC 다층 보안 시스템과 Redis 분산 속도 제한 구현
- DDD 모듈 아키텍처로 확장 가능한 멀티테넌트 시스템 설계

3. 지속적인 학습과 성장

- Google Machine Learning Bootcamp 2024 수료 — 최신 ML 기술 습득
- Kaggle Competition: Insurance Cross Selling 상위 3.7% (83위/2,236팀)
- 동아리 활동: 1년간 40여 명 대상 알고리즘 강의 및 멘토링
- 개발 커뮤니티 활동을 통한 지식 공유와 네트워킹

기여할 수 있는 가치

귀하의 팀에서 저는 다음과 같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실무 기반 빠른 적응: 실제 운영 중인 서비스 경험을 바탕으로 빠른 온보딩이 가능합니다.
2. 문제 해결 역량: 알고리즘적 사고를 통한 복잡한 기술 문제의 체계적 해결이 가능합니다.
3. 확장 가능한 시스템 설계: 대용량 트래픽과 실시간 처리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백엔드 설계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4. 지속적 개선: 코드 품질, 성능 최적화, 보안 강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실행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부 및 다짐

기술은 사람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도구라고 믿습니다. 저는 단순한 기능 구현을 넘어서, 사용자에게 진정한 가치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만드는 엔지니어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귀하와 함께 더 큰 임팩트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가진 모든 역량과 열정을 쏟아 팀의 성공에 기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호 영 드림